

# '보복폭행' 김승연 회장 피해자와 합의

### 검찰 "반의사 불벌죄 해당 안 돼 기소 영향 없다"

'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이 최근 피해자인 북창동 S클럽 사장 및 종업원 6명과 합의했지만 검찰의 기소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22일 "김 회장 측과 피해자 측이 최근 합의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받았으며" "법원의 선 고 때는 양형 등에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지 모르겠지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검찰

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별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강간이나 서로 1대 1로 싸운 폭행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면 반의사 불벌죄가 돼 처벌할 수 없지만 이번처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한 경우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기소할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회장의 경우 다수의 경호원을 동원해 이뤄진 집단폭행이란 점을 감안하면 지금까

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 측도 "이달 19일께 '김 회장 등이 피해를 배상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그러나 합의금 액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김 회장 측은 지난 11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면서 영장이 발부되기 전 피해자 1명당 1천500만원씩 모두 9천만원의 이 합의금 조로 법원에 변제공탁한 바 있다. /연합뉴스

## '의협비리' 장동익 前 의협회장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21일 대한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장동익 전 의협회장에 대해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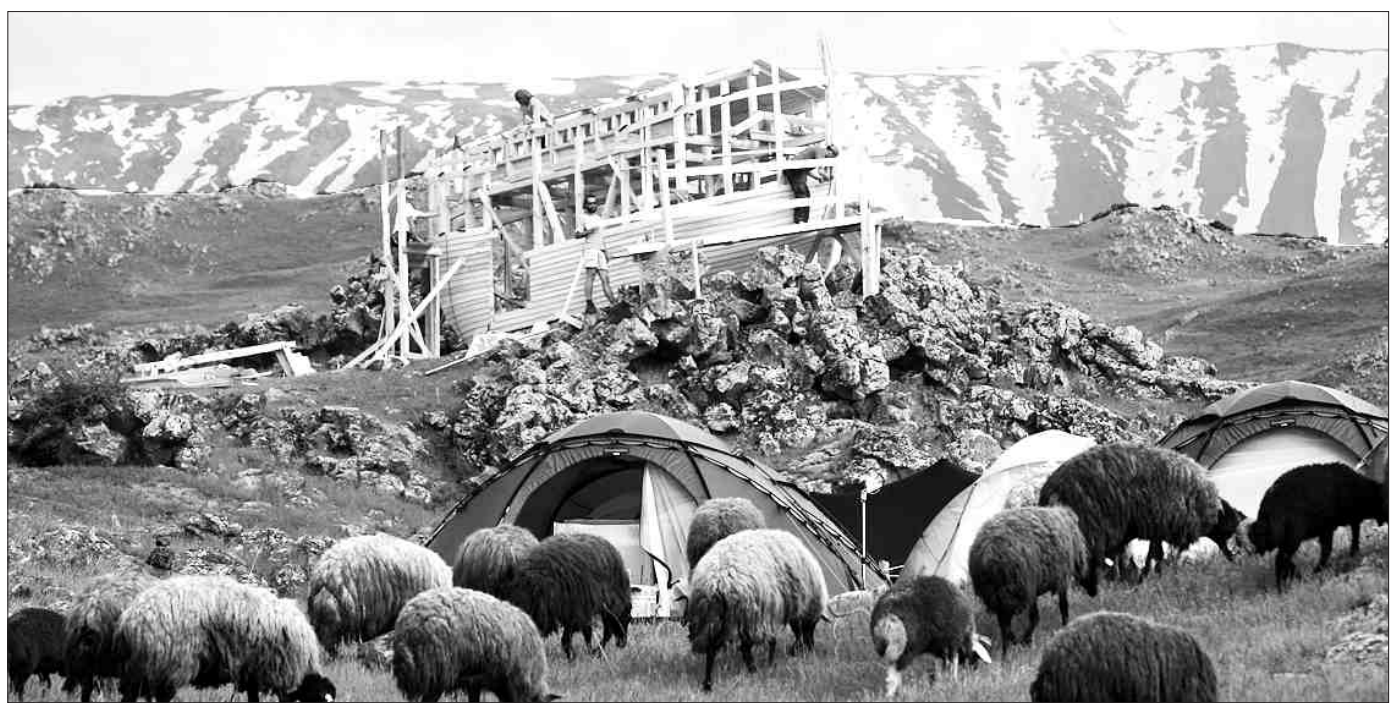
장 전 회장은 의사협회와 회장 관공비, 의정회 사립비 등 수억원을 횡령하고 빼돌린 돈을 국회의원 등에게 후원금으로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15일과 16일 장 회장에 대해 후

원금을 받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경화, 김병호 의원을 피해자사 신분으로 잇따라 불러 조사했으며 18일 정경근 의원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에는 두 사람 이상의 공동 행위가 필요한 '필요적 공범' 개념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의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현대판 노아의 방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21일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터키 아라라트산에 현대판 노아의 방주를 짓고 있는 가운데, 양떼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골든로즈호 선장 추정 시신 1구 추가 인양

### 시신 1구는 인양 실패...실종자 3명 사망 확인

골든로즈호 선체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국 구조팀이 22일 오전 10시50분께 선장실 부근 통로에서 한국인 선장 허용복(58) 씨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추가 인양했다고 현지 사교 대책반 관계자가 밝혔다.

대책반은 이날 발견된 시신이 왼손 중지 한마디가 없는 허씨의 신체적 특징과 일치하고 사체로 발견된 지점이 선장실 부근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추정했다.

구조팀은 또 이날 오전 11시1분에 3층 항

해사 선실 부근에서 실종자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해 인양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에 따라 선체수색 작업이 시작된 지 3일째인 이날까지 골든로즈호에서 발견된 실종자 시신은 전날 인양된 미안판인 항해사로 추정되는 시신을 포함해 모두 3구가 됐다.

구조팀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일단 잠수 작업을 끝냈으며, 오후 중 기상 조건과 조석 시간 등을 감안해 시신 인양 및 수색작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엔데비=연합뉴스

## '미래 한국군 병사'



기무사가 22일 공군회관에서 개최한 국방정보보호 콘퍼런스 행사에서 제시한 미래 한국군 병사 모습. /국방부

## "반드시 통일" 대학생 47% 그쳐 54% "대북정책 북에 끌려다녀"

대학생들의 자체 설문조사에서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학생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생 인권단체연합체인 북한인권 청년학생연대(대표 성하은, 숙명여대 4)는 최근 서울지역 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한 대북 인식조사 결과, 전체 학생의 47.4%만이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고 답했고 나머지는 '자유왕래가 가능하다면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34.6%)거나 '모르겠다'(15.8%)고 응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사에서 대학생들은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 '원래 한 국가를 이루고 있었으므로'(32.4%), '안보불안 해소'(23.4%), '시장확대 등 경제적 성장'(18.0%), '동북아시아의 중심적 역할을 위해'(14.4%) 등을 꼽았고 통일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는 '문화적 이질감'(28.4%), '통일비용'(25.9%), '남한 경제에 타격'(22.2%) 등을 들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에 끌려다닌다'가 54.3%에 달한 반면 '평화공존을 위한 현실적 정책'이라는 의견이 20.1%에 불과했으며,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효과없는 퍼주기'(39.3%), '통일대비 대북투자'(19.7%), '평화유지를 위한 지원'(17.5%) 등 순으로 인식했다. /연합뉴스

## 美, 테러방지 비협력국에 北 재지정

### 네그로폰테 국무부 부장관 발표

북한이 21일 또 다시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테러방지 노력 비협력국에 지정됐다.

존 네그로폰테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북한이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와 함께 무기수출통제법 제40조 A항에 따른 테러방지 노력 비협력국으로 지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4월말 2006년 국무부 테러보고서에서 테러지원국에 북한과 이란, 쿠바, 시리아, 수단 등이 재지정됐음을 감안하면 수단과 베네수엘라만 자리바꿈한 셈이다.

이로써 조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조기 핵폐기를 견인하기 위해 연내 기술적으로 어려운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는 못해 주더라도 테러방지 활동에 비협조적인 국가들 명단에서는 빼출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관측은 일단 빚나갔다.

그간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지난달 27일 부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간 정상회담에서 남북사 문제 해결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터여서 대가 적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더욱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재

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올해 미 국무부의 테러보고서를 긍정 평가했던 분위기를 감안하면 북미관계에 좋지않은 파장을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일각에선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자금 2천500만달러의 송금 문제를 이유로 2·13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실망감의 발로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해한 전 총리가 발한했을 때 미 고위관리들은 대체로 며칠내 BDA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그러나 국무부와 법무부까지 관여된 BDA 송금의 기술적 문제가 의외로 간단치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

## "日, 군대위안부 회복조치 취하라"

### 유엔, 고문가해자 처벌 강화 주문

유엔 고문방지협약위원회는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일제가 저질렀던 군대 위안부 문제와 관련, 면책 방지 조치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회복 조치들'(rehabilitative measures)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위원회는 제38차 회의를 18일 마무리짓는 뒤, 21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또한 일본이 교육을 통해 성적이 되고 성별에 근거한 인권 침해들의 차별적 근원을 증점적으로 다룰 것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과 우크라이나, 폴

란드를 비롯한 7개국의 협약 이행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고문방지협약위원회는 이와 함께 일종의 대응(代用) 교도소 시스템인 일본 정부의 '다이오 간고쿠'의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활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다이오 간고쿠' 시스템은 체포된 사람들이 법정에 출석한 이후에도 부금을 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그것은 불충분한 절차적 보장들과 합쳐져 구금된 사람들의 인권을 남용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네바=연합뉴스

## 정부, F16 부품 상업계약 통해 확보 검토

한국 정부는 공군의 주력전투기인 F-16 부품을 값싸고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미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부품을 조달하던 방식(FMS)을 탈피, F-16 제작사 및 부품회사와 상업계약을 체결해 직접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워싱턴의 군사소식통은 21일 "지금까지 F-16 전투기 부품은 FMS방식으로 구매해 왔으나 F-16 제작사 및 부품생산회사, 부품 판매회사 등을 통해 상업계약으로 구매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FMS방식을 통한 부품 공급은 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장점이 있지만 미국 공군의 우선순위에 밀려 한국에 필요한 부품조달이 늦어질 수도 있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군수회사와 직접 상업계약을 통해 부품을 구매할 경우 산 가격으로 빠른 시일에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 국비무료모집

과정	교육내용
기업사무자동화인력양성 영세지역영입자 교육(07/6/1~3개월)	원도우XP, 워드, 엑셀, 컴퓨터활용능력 등 다양한 기능 습득 (시간: 9:10-13:00) *영세지역영입자: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장 보충설계사, 학습지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등으로 지역 내 교육, 교재무료제공, 수업지급

###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재직과정(교육기간)	교육내용(교육시간)
주택관리사 (월~토)	교육기간: 6/4~7/31 (월~금: 19:00-22:30, 토:15:00-18:30)
공인중개사 (월~토)	교육기간: 7/2~8/31 (월~금: 19:00-22:30, 토:15:00-18:30)
주택관리사 주말반(토,일)	교육기간: 7/7~8/26 (토:14:00-20:00, 일:10:00-17:00)
개강 5/16 (월~금)	사무자동화, 엑셀, 엑세스, 파워포인트 사무자동화실기 대비

### 기타 사항

- 교육보장기인 직장인 선착순 정원제 모집
- 수료 후 100%~80원급
- 수강절차: 훈련 상담→훈련수강신청서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자격직강
-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강의 DVD녹화대여로 반복학습

### 현대직업전문학교

☎ 224-4560, 224-4580, 232-1088  
위치: 동부경찰서 옆 http://www.hdedu.co.kr

= 좋은 기회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지금 바로 준비하십시오) =

## 7·9 급 공무원 대비

속보 = 전남 9급 교육행정직 을 하반기 시행 =

◎ 채용인원: 000명(약 50명) 이상 필독, 합격에 절호의 기회◎  
※ 05년 12월 11일 165명 공채, 1875명출원, 응시율 9:1 경쟁이었다 ※

= 서울 7월 8일 · 전남 6월 23일 · 전북 9월 8일 시행 =

### 시험 문제풀이 톱 1개월 완성

6월 1일 주(휴)만 모집 (현재 상담 접수중)

= 46년 전통의 "無等"은 "꼭" 합격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립니다. =

www.mdgosi.co.kr ☎ 222-4560

Speed 인생역전! 대학편입, 의 치의학, 한의학전문대학원

## 합격생 70% 김영출신

개강 6월 1일

- 의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 대비반
- 약대/한의대/수의대 편입대비반
- 08년 편입시험 대비반(일반편입/학사편입)

★ 수준별 맞춤형 강좌: 기초-이론-적용-핵심-심화  
개설과목: 영어, 언어추론, 생물, 화학, 유기화학, 물리, 한문, 한의학

그 동안 김영출신 11만 5천여명 합격 www.kjkimyoung.co.kr  
김영(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 227-8088

www.hanbitgosi.co.kr ▶ 공무원합격 검색률 1위

# 공모입학객은 한빛이 주도한다

수강률 1위! 만족도 1위! 합격률 1위! - 새로운전 .....이젠 한빛이 경쟁력이다

## 79급 공무원전강좌

두배 빠른 합격시스템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대형 호텔급 학원 최강의 프로그램이진 누가봐도 "역시" 한빛고시학원입니다.

## 이구동성! 한빛이 최고!

개강 6월 1일 (주/야간반)

# 한빛공무원학원

전대후론 북구청앞 (062) 234-0234

지재학원: 김영편입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222-8088), 한빛경찰학원 (전대후론 북구청앞 262-3553)